

“팬데믹으로 경제 혼란... 혁신기업 나와야 빠르게 회복될것”

노벨 경제학상 수상 라스 피터 헨슨 시카고대 교수

“대규모 혼란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선 새로운 기업의 출현을 촉진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라스 피터 헨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68)는 3일(현지시간) 전미경제학회 개막에 맞춰 매일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세계 경제에 대해 걱정보다는 희망을 이야기했다. 뉴욕 증시를 비롯한 자산가격의 버블 우려에 대해서도 전염병 극복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적 시각이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다. 헨슨 교수는 2013년 유진 파마 시카고대 교수,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등과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을 목격했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대규모 혼란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기업들의 정상화뿐 아니라 새로운 기업의 출현을 촉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 증시나 부동산 등에서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거품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 금융상품 가격에서 거품 요소를 분리하고 찾아내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실물경제와 단절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는 것이 중요하다. 자산 가치는 미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을 반영한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상은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가 담겨 있다.

— 한국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큰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는데.

▶ 한국 주택시장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에서 주택시장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역효과를 낳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악화시켰다. 시장 가격은 중요한 신호를 제공하기 마련이다. 가격을 조종하려는 시도는 위

험할 수 있다.

— 현재 미국과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가.

▶ 단기적 위험보다는 장기적인 과제를 고민해보기를 권한다. 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한다면 각국 경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다음에는 준비가 더 잘 돼 있을까. 시장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경제정책은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 기후변화 대응을 내세운 조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생각은.

▶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정책이 정확히 무엇이라고 말하기는 이른 것 같다. 새 정부가 여러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황한 공약들은 ‘그림의 떡’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친환경적 에너지 정책 공약을 보면 우려가 있다. 기후변화는 사회적 의제인 하지만 과거 정부의 실적을 보면 민간의 벤처투자자보다도 못한 성적을 거뒀다. 정치적으로려는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새롭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기업이나 정치권 로비에 따른 직접적 보조금 지급은 피해야 할 것이다. 위싱턴/신현철 특파원

▶ He is... △1952년 출생 △미네소타대 경제학 박사 △카네기멜런대 교수 △시카고대 교수(1981년~현재) △2013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

‘일반적률추적법 (Generalized Method of Moment)’을 발전 시켜 자산가격 예측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받았다. 역시 노벨상을 받았던 스승 크리스토퍼 심스 프린스턴대 교수의 뒤를 이어 계량경제학을 거시경제 분석에 적용한 대가로 손꼽힌다.

그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질문에 “한국 전문가가 아니다”라면서도 “주택시장에 개입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역효과만 낳았다”며 인위적 정부 개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쓴소리를 내놨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

—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인 전망도 있다. 경제 활동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까.

▶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경제활동이 대면 접촉 대신에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속될지 의문이다. 재택근무에 대한 선택권이 얼마나 보장될 것

코로나 백신 보급되면서 경기도 빠르게 좋아질 것

금융시장 거품 우려보다는 기대감 반영됐다고 봐야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 문제 해결 못하고 역효과만

인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원격 형태의 의사소통에 대해 일정한 학습이 이뤄졌다. 그러나 대면적 상호작용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발성(spontaneity)을 내포한다. 게다가 많은 업무가 팀으로 함께 일하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근무장소에 대해 유연성이 증가하는 수준에서 완만한 변화를 예상한다. 코로나19가 찾아들더라도 우리는 미래의 새로운 전염병에 대

한 두려움을 갖고 살게 될 것 같다. — 팬데믹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 일자리와 경제적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은 팬데믹에 불평등하게 노출돼 왔다. 그러나 일단 백신을 통해 이 무서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면 추가적 격차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다. 팬데믹 이전에 이미 어떻게 하면 경제적 기회의 문호를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는 장기적인 도전 과제였다. 합리적인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필요는 있지만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경제적 기회의 평등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 각국 정부는 통화재정정책을 총동원해 경기후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 우리는 이미 팬데믹이 경제의 일부 분야를 강타했고 기업들이 파산하는 것

“독점이익 누려온 기업들, 기후변화·불평등 해법 내놓아야”

“기업은 어떻게 하면 커져 가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4일(한국 시간) 새벽 전미경제학회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사회적 발명품이라고 불리는 ‘기업’이 어떻게 하면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거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세션이 진행됐다.

꼭 부러지는 해답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미국 경제학계에서 흐르는 분위기가 1970년대 이후를 지배했던 ‘주주 이익 극대화’를 벗어나 ‘사회적 이익 극대화’ 쪽으로 모이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감지할 수 있는 세션이었다. 이날 참여한 토론자들은 모두 주주-이사회-경영자로 이어지는 기업의 지배구조 전반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주자본주의의 변화 세션

기업이 사회적 이익추구 위해 주주·이사회·경영자 포함한 지배구조 전반적 변화 있어야

촉구했다.

루이지 징갈레스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는 “지금의 기업 지배구조는 밀턴 프리드먼이 1970년 제시한 ‘주주 이익 극대화’에 맞춰져 있다”며 “하지만 이제 기업들은 ‘사회적 이익 최적화’라는 새로운 숙제를 부여받고 있다”고 말했다.

‘포이즌필’이라는 용어를 만든 것으로 유명한 마틴 립틴 변호사(워싱턴 로젠&카츠라는 유명 로펌 설립자)는

기업들이 부여받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예를 들었다.

기후변화,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사람들은 이제 과거와 달리 독점적으로 힘이 거대해진 기업들에 해법을 묻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 대선 기간 편향성이 짙은 정치인들의 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에 대해 불매운동이 벌어졌던 것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그런데 기업들에 사회적 문제 해결과 주주 이익 극대화까지 모두 이뤄내라고 주문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닐까. ESG(환경·책임·투명경영) 전문가인 산제이 바جات 콜로라도대 교수는 “기업 뿐만 아니라 주주 및 이사회에 접근 관



루이지 징갈레스 교수 마틴 립틴 변호사

점 자체가 주주 이익 극대화를 넘어 사회적 이익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리 사회적 관점을 중시하는 최고경영자(CEO)가 있다 하더라도 그의 연봉 결정권과 해임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회를 비롯해 이사회에 위임하는 주요 주주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는 것이다.

립틴 변호사는 “주주자본주의만을 중시하는 기업들이 로비 등을 통해 법규를 바꾸고 그 결과 우리 사회에는 소득 불균형 등과 같은 악영향을 끼쳤다”며 “기관투자자들부터 단기 실적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갈레스 교수는 “2021년에는 블랙 록 같은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앞장서서 투자 기업 CEO들에게 ‘정부를 상대로 로비하지 말라’고 일종의 캠페인 같은 것을 벌이면 어떨까”라고 웃으며 제안했다. 그 정도로 CEO뿐만 아니라 대형 기관투자자와 이사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

립틴 변호사는 현재 법 체제 내에서도 이런 변화는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어떤 경영자가 기업의 이익을 위한 정

치권 로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다면 주주들이 그에게 소송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경영자는 주주들을 대리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돼 있지만 그 방법은 CEO 자신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주주 이익 극대화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징갈레스 교수는 “사람들은 돈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주주 이익 극대화뿐만 아니라 나눔, 즐거움, 가족에 등과 같은 사회적 인센티브가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리곤밸리/신현규 특파원

푸른에너지로 따뜻한 행복을 만듭니다

한국가스공사

